

“건설분야 경제민주화 절실” 이이재 의원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서 주장

민간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간 건설공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 토론회’를 열고 “민간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설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

원과 대한건설협회 등의 주관으로 성황을 이뤘으며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민간 건설공사가 불합리한 계약으로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건설사 254개사 중 전체 45.3%인 115개사가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회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간 건설공사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이재 의원 등은 지난달 26일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민왕기기자 wanki@

